

※ 영역별 문제 구성

문법	우리말 어휘 및 한자	언어영역	문학
[고전문법] 중세국어의 높임(10번) [현대문법] 형태론: 단어의 형성(6번) 통사론: 양태(7번), 문장성분(8번), 사동과 피동표현(9번) [어문규정] 표준어(1번), 띄어쓰기(2번), 외래어표기(3번)	[한자] 두 글자 한자: (4번, 12번) 사자성어: (18번)	[쓰기] 어법에 맞는 문장(5번) [읽기] 지문: 내용 이해(11번, 13번), 글의 순서-두괄식(14번)	[운문문학] 고전시가 복합(20번) 현대시: 바다와 나비(16번) [산문문학] 고전소설: 호질(19번) 현대소설: 눈길(17번) [국문학사 복합 - 15번]
8 문제	3 문제	4 문제	5 문제

1. 다음 밑줄 친 어휘가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내 친구는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해서 걱정이야. ② 운동을 많이 했더니 장단지가 멍쳐서 아프네.
 ③ 철수는 짜장면을 즐겨 먹어. ④ 영수가 칠판에 글을 개발새발 그려놓았어.

정답 ②

(해설)

- '종아리의 살이 블록한 부분(≒어복).'을 뜻을 지닌 단어로 '장단지'가 맞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

- 나머지 선택지 살펴보기

①③④ 기존에 있던 표준어에 새로 추가된 표준어(2011)에 해당합니다.

만날(기존)/맨날(새로 추가됨) - 복수 표준어, 자장면(기존)/짜장면(새로 추가됨) - 복수 표기, 괴발개발(기존)/개발새발(새로 추가됨) - 별도 표준어

<참조: 2020 국어로 심화편 1권, 240페이지~241페이지>

2.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지▽말라는▽데는▽가지▽말아야지▽왜▽그런▽곳에▽간▽거야?
③ 그▽일을▽왜▽해야▽하는▽지를▽잘▽모르겠어.

- ② 너▽만큼▽나도▽그▽사람을▽보고▽싶어.
④ 나도▽그곳에서▽보다▽이곳에서의▽생활이▽더▽좋아.

정답 ①

(해설)

- 1) 가지(본 용언) 말라는(≒마라는 - 보조 용언), 가지(본 용언) 말아야지(보조 용언)의 경우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조: 2020 국어로 심화편 1권, 158페이지-한글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제3절 보조용언 제47항 규정>

2) 장소나 경우를 나타는 의존 명사 '데'의 경우에는 앞말과 띄어 쓰게 됩니다. 의존 명사 '것'에 뒤에 서술격 조사 '이야(이다의 활용)'가 붙어 '거야'로 활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1) 조사는 앞말의 붙여 씁니다. 따라서 '데는', '곳에', '거야(것이야 - '서술격 조사' -이다)의 경우는 규정을 잘 지킨 예가 됩니다.

<참조: 2020 국어로 심화편 1권, 153페이지-한글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제1절(조사) 제41항, 제2절(의존 명사 등등) 제42항 규정>

- 나머지 선택지 살펴보기

② 너▽만큼▽나도▽그▽사람을▽보고▽싶어.

→ 의존 명사 '만큼'은 앞말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이 오게 되는 경우 앞말과 붙여 써야하므로 '너만큼'이 맞습니다.

③ 그▽일을▽왜▽해야▽하는▽지를▽잘▽모르겠어.

→ 여기서의 '-지'는 의존 명사로 쓰인 게 아닙니다. 앞말 '해야 하는'의 어말 어미에 해당하기 때문에 붙여 써야하므로, '해야▽하는지를'이 맞습니다. '지'가 의존 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말이 있는 경우에 띄어 쓰게 됩니다.

④ 나도▽그곳에서▽보다▽이곳에서의▽생활이▽더▽좋아.

→ '-보다(비교)'는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에 붙어 '~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였기 때문에 붙여 써야합니다.

4. 다음 밑줄 친 어휘의 사용이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것은 사장님의 결제(決濟)를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 ③ 무명의 신인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부상(負傷)했습니다.

- ② 이 선수가 앞으로 한국 신기록을 경신(更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④ 저 사람이 헌법 소원(所願)을 낸 사람입니다.

정답 ②

(해설)

- '기록경기 따위에서, 종전의 기록을 깨뜨림의 뜻'으로 쓰인 경신(更新) 맞습니다.

<참조: 2020 국어로 심화편 1권, 98페이지-국어의 어휘, 한자어 구별하기>

- 나머지 선택지 살펴보기

① 결제(決濟)

→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의 뜻으로 쓰인 것은 결재(決裁)입니다.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의 뜻이 결제(決濟)이므로 한자도 표기도 다릅니다.

<참조: 2020 국어로 심화편 1권, 98페이지-국어의 어휘, 한자어 구별하기>

③ 부상(負傷)

→ '몸에 상처를 입음.'의 뜻으로 쓰인 부상(負傷)입니다.

'어떤 현상이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어떤 사람이 훨씬 좋은 위치로 올라섬.'의 뜻으로 쓰인 것은 부상(浮上)입니다.

④ 소원(所願)

→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램. 또는 그런 일.'의 뜻으로 쓰인 소원(所願)입니다.

헌법소원(憲法訴願)의 경우 '하소연하여 바로잡아 주기를 바램.'의 뜻으로 쓰인 소원(訴願)으로 다른 한자가 쓰여집니다.

5. 다음 중 가장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것은?

① 그 계획은 가능한 한 빨리 실행되어야 한다.

② 철수는 근거 없는 낭설에 휘말려 곤혹스러웠다.

③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잘 극복하길 바란다.

④ 영희는 철수와 싸운 뒤로 일체 대화를 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 1) '가능한' 뒤에 의존명사 '한'이 붙어 조사 결합의 제약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2) 부사어 '빨리'와 서술어 '실행되어야 한다.'의 문장 성분간 호응이 맞으므로 옳은 선택지가 됩니다.

<참조: 2020 국어로 심화편 1권, 350페이지-쓰기/작문>

- 나머지 선택지 살펴보기

② 철수는 근거 없는 낭설에 휘말려 곤혹스러웠다.

→ '근거 없는'과 '낭설≒(헛소문: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의 의미가 중복되었습니다.

③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잘 극복하길 바란다.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어'자리에 ~것/점/사실은(는)라는 말이 오게되는 경우 서술어자리에도 '~는 것/점/사실이다.' 등이 와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잘 극복하길 바란다는 것이다.' 등으로 고쳐 볼 수 있습니다.

④ 영희는 철수와 싸운 뒤로 일체 대화를 하지 않는다.

→ '일체' 다음에는 긍정이 와야 옳습니다. 선택지에는 부정의 말이 오고 있으므로 '일절'이 와야 합니다.

<참조: 2020 국어로 심화편 1권, 348페이지-쓰기/작문, 호응의 원칙>

6.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어는 하나의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일어와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어로 나눌 수 있다. 복합어는 다시 실질 형태소에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와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이하 생략)

- | | ㉠ | ㉡ | ㉢ |
|---|-----|-----|----|
| ① | 아버지 | 값어치 | 덮밥 |
| ② | 바가지 | 값어치 | 마중 |
| ③ | 아버지 | 곤잘 | 마중 |
| ④ | 바가지 | 곤잘 | 덮밥 |

정답 ①

(해설) 파생어인 ‘바가지(박+아지)’가 있는 문항 둘을 제거하고 나면 정답에 가까워질 확률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 1) 단일어는 ‘한 단어’를 일컫는 것으로 ‘아버지’의 경우 ‘단일어’에 해당합니다.
- 2) ‘값어치’의 경우 ‘값(실질 형태소)+어치(접사)’가 붙은 ‘파생어’에 해당합니다.
- 3) ‘덮밥’의 경우 ‘덮(덮은-실질 형태소)+밥(실질 형태소)’가 붙은 ‘합성어(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합니다.

- 나머지 선택지 살펴보기

- 1) 바가지는 ‘박(어근)+아지(접사)’의 파생어에 해당합니다.
- 2) 곤잘은 ‘곤(부사-실질 형태소)+잘(부사-실질 형태소)’의 합성어(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합니다.
- 3) 마중은 ‘맞(어근)+웅(접사)’의 파생어에 해당합니다.

7. 다음으로 보았을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표현하는 장치를 양태(modality)라고 한다. 국어에서 양태 표현은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우언적 구성 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추측, 가능성, 지각’ 등 ‘인식 양태’와 ‘의도, 소망, 능력, 허가, 의무’ 등 ‘행위 양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꼭 말해야 한다.’의 ‘-어야 하-’는 행위 양태이다.
- ② ‘사람들이 많길래 그냥 돌아왔어.’의 ‘-길래’는 인식 양태이다.
- ③ ‘민주는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의 ‘-(으)ㄴ 수 있-’은 행위 양태이다.
- ④ ‘나는 내일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겠다.’의 ‘-겠-’은 인식 양태이다.

정답 ④

(해설)

- 여기서의 ‘-겠-’은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행위 양태’에 해당합니다. <참조: 2020 국어로 심화편 1권, 52페이지: ‘겠’의 용법>

<지문 출전: 한국어 문법 총론1, 구본관 외(2015) >

- 나머지 선택지 살펴보기

- ① ‘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꼭 말해야 한다.’의 ‘-어야 하-’는 행위 양태이다. → 의무를 나타내는 행위 양태입니다.
- ② ‘사람들이 많길래 그냥 돌아왔어.’의 ‘-길래’는 인식 양태이다. → 추측을 나타내는 인식 양태입니다.
- ③ ‘민주는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의 ‘-(으)ㄴ 수 있-’은 행위 양태이다. → 능력을 나타내는 행위 양태입니다.

8.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주어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철수가 학자가 되었다. ㉡ 저 가게가 신발이 값이 싸다. ㉢ 할아버지도 키가 큰 편에 속하신다. ㉣ 학회에서 새로운 논문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④

(해설) 문장의 주체가 되는 것을 주성분이라 합니다. 그 주성분 중의 주어(체언+주격조사, 체언+보조사)를 찾아야하는 경우입니다.

- 1) ㉠: ‘싸다’는 세 자리 서술어로 주어로는 ‘신발이’와 ‘값이’, 필수 부사어로 ‘가게가’가 있는 문장입니다.
- 2) ㉡: 전체 문장 ‘할아버지가(주어) 속하신다.(서술어)’에 ‘키가(주어) 큰(서술어) 크다-ㄴ 관형절 연결어미’가 관형절로 안겨 있는 문장입니다. 이 관형절이 부사어 ‘편에’를 수식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 3) ㉢: 이 경우에는 학회에서를 주격조사 ‘-가’로 바뀌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회에서(주어) 새로운(관형어) 논문상 수상자를(목적어) 발표했다.(서술어)’

- 나머지 선택지 살펴보기

㉠ 서술어 ‘되었다’ 앞의 ‘학자가’의 경우는 ‘보어’에 해당합니다.

<참조: 2020 국어로 심화편 1권, 66~68페이지-국어의 문장 성분>

9. ㉠, ㉡의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접사 '-이-', '-히-', '-리-', '-기-'는 ㉠피동사를 만들기도 하고 ㉡사동사를 만들기도 한다. 피동사로 만들어진 문장은 어떤 행위나 동작이 주어로 나타내어진 인물이나 사물이 제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행동에 의해서 됨을 표현하고, 사동사로 만들어진 문장은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 함을 표현한다.

- ① ㉠: 시청에 태극기가 걸렸다. ② ㉠: 눈발이 하늘 위로 날렸다. ③ ㉡: 형은 힘차게 팽이를 돌렸다. ④ ㉡: 토끼가 사자에게 다리를 물렸다.

정답 ④

(해설)

- 선택지 모두 어근 뒤에 접사 '-리'로 쓰인 공통점이 있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업시간 배웠던 시킴(사동)과 당함(피동)으로 구분하셔야합니다. 사동과 피동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조: 2020 국어로 심화편 1권, 74페이지: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 표>

구분 상태	사동 표현 시킴	피동 표현 당함
파생적 변화-접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이, 히, 리, 기-
통사적 변화-어미	-게 하다	-아/어 지다

'토끼가 사자에게 다리를 물렸다.'의 경우에는 당함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동사가 아니라 피동사로 쓰인 경우라 적절하지 않습니다.

- 나머지 선택지 살펴보기

- ① ㉠: 시청에 태극기가 걸렸다. → 이 경우에는 피동 어미 '-아/어 지다'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② ㉠: 눈발이 하늘 위로 날렸다. → 이 경우에는 피동 어미 '-아/어 지다'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③ ㉡: 형은 힘차게 팽이를 돌렸다. → 이 경우에는 사동 어미 '-게 하다'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10. 다음의 중세국어 문장 중 높임의 등급이 다른 것은?

- ㉠ 니르산 양으로 호리이다
- ㉡ 므슴 차바닐 손 소 둔녀 밧노닛가
- ㉢ 그디 이 은늘 날 송장에 쓰 고 남거든 그디 가졌서
- ㉣ 부터와 중과 룰 講 호수 보 려 호닐다

- ㉦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까.
- ㉧ 무슨 차반을 손수 다니면서 만드시오?
- ㉨ 그대가 이 금으로 내 장사(葬事)를 지내고, 남거든 그대가 가져라
- ㉩ 부처님과 중을 청하려 하오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①
(해설)

- 선어말어미 ‘-이-’를 활용하여 아주 높임을 나타내는 ‘호쇼셔체’로 쓰였습니다.

15세기 상대높임법에는 ‘호라체(아주낮춤), 호야씨체(예사높임이나 예사낮춤), 호쇼셔체(아주높임)’ 3등급 체계가 있습니다.

‘호쇼셔체(아주높임)’는 종결어미로는 선어말어미 ‘-이-’, ‘-잇-’이 결합된 평서형의 ‘-(으)이다’, 의문형의 ‘-(으)잇가’, ‘-(으)잇고’가 있고, 명령형으로는 ‘-쇼셔’가 있습니다.

‘호야씨체(예사높임이나 예사낮춤)’의 종결어미로는 선어말어미 ‘-닝-’과 ‘-닛-’이 결합된 평서형의 ‘-닝다’와 의문형의 ‘-닛가’, ‘-닛고’가 있으며, 명령형으로는 ‘-야씨’가 있습니다.

‘호라체(아주낮춤)’에는 선어말어미가 결합되지 않습니다. 종결어미로는 평서형의 ‘-다’, 의문형의 ‘-가’, ‘-고’, 명령형의 ‘-라’가 있습니다.

- 나머지 선택지 살펴보기

- ② ㉡ → 밧노니 다음에 의문형의 ‘-닛가’가 붙은 호야씨체(예사높임)입니다.
- ③ ㉢ → 아주낮춤을 나타내는 ‘호라체’로 쓰였습니다. 가져 다음에 명령형 ‘-라’가 붙은 경우입니다. (다만, 규장각 본에서는 ‘가지라’로 되어있음)
- ④ ㉣ → ‘호노이다’에서 ‘-닛-’이 결합된 평서형으로 예사높임으로 쓰인 ‘호야씨체’입니다.

※ ㉦㉧㉨(석보상절 제6 기원정사 건립), ㉩[이륜행실도, 이면환금(李勉還金): 이면(당나라 사람)이 금을 돌려주다]

11.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통의 예(例)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통은 물론 과거로부터 이어 온 것을 말한다. 이 전통은 대체로 그 사회 및 그 사회 구성원인 개인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과거에서 이어 온 것을 무턱대고 모두 전통이라고 한다면, 인습이라는 것과 구별이 서지 않을 것이다. [중략]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우리의 전통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중략]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 문화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연암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이었다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사실이다.

- ① 원효의 해동종(海東宗) ② 세종의 훈민정음(訓民正音) ③ 조선의 고문파(古文派) ④ 신윤복의 풍속화(風俗畵)

정답 ③

(해설)

-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 이기백>의 내용을 일부 옮겨 놓은 문제입니다.

③의 경우에는 ‘그러나 과거에서 이어 온 것을 무턱대고 모두 전통이라고 한다면, 인습이라는 것과 구별이 서지 않을 것이다.’의 해당되는 예시입니다.

※ 지문에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지만 ‘연암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이었다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사실이다.’의 다음으로 세종의 훈민정음, 원효의 해동종, 정선·김홍도·신윤복 등으로 전통에 대한 예시 나옵니다.

<참조: 2020 국어로 심화편 1권, 381~384페이지-읽기/독서>

12. 다음 밑줄 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전의 반열에 올라 있는 책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미디어의 변화는 시서화(詩書畵)의 세계마저 영상 서사로 바꾸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책과 종이 그리고 독서의 종말을 예단하기도 합니다.
- 사실 왜곡과 여론 호도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 기술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반추할 여유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 ① 반열(班列): 품계나 신분, 등급의 차례 ② 예단(豫斷): 미리 짐작하여 판단함
③ 호도(糊塗): 경망스럽게 떠벌림 ④ 반추(反芻): 어떤 일을 되풀이하여 음미함

정답 ③

(해설)

- 호도(糊塗) 「명사」 풀을 바른다는 뜻으로, 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일시적으로 감추거나 흐지부지 덮어 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 경망스럽게 떠벌리는 의미의 단어로는 ‘호들갑’이 있습니다.

13.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벼락치기의 원동력, 그것은 스트레스로 인한 일종의 각성 효과이다. 마감이라는 스트레스가 뇌의 활용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시상 하부에서 신호를 보낸다. 시상 하부에서 보낸 신호는 교감 신경을 따라 부신으로 전해지는데, 이때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 바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다. 이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질 뿐 아니라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또한 뇌가 각성, 즉 깨어 있는 상태가 되어 고도의 집중력이 생긴다. [중략]

한 중학교에서 시험이 끝난 며칠 후 출제 문항을 조금씩 변형해 재시험을 보았다. 시험을 치를 과목은 사회와 미술이고 각각 시험지에 벼락치기 여부를 표시하게 했다. 시험 결과 양쪽 모두 조금씩 점수가 떨어졌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벼락치기로 공부했다고 대답한 과목의 점수가 그렇지 않은 과목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중략]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분비되는 코르티솔은 해마의 신경 세포 수를 현저하게 떨어뜨린다고 한다. 어쩌면 반복되는 스트레스가 뇌 신경 세포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켜 기억력 감퇴, 우울증 등 현대인들에게 신경 질병들을 만들고 있는지 모른다.

- ① 벼락치기로 많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 ② 벼락치기는 장기 기억에 효과적이다.
- ③ 이 글의 핵심어는 '스트레스, 우울증, 기억력'이다.
- ④ 일상적 행동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정답 ①

(해설)

- 1문단에서 몇몇 문장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감이라는 스트레스가 뇌의 활용을 높이는 것이다.', '이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질 뿐 아니라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또한 뇌가 각성, 즉 깨어 있는 상태가 되어 고도의 집중력이 생긴다.'

따라서 위 문장들로 미루어 볼 때 각성효과로 두뇌가 활성화되어 많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문 출처: 벼락치기의 마술, 한국방송공사(KBS) 과학 카페 제작팀>

- 나머지 선택지 살펴보기

② 벼락치기는 장기 기억에 효과적이다.

→ 2문단의 내용에서 미루어 짐작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재 시험을 치렀을 때 벼락치기로 공부했다는 과목의 점수가 그렇지 않은 과목의 점수보다 떨어졌다는 것을 들어 장기기억이 아닌 단기기억에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이 글의 핵심어는 '스트레스, 우울증, 기억력'이다. → 이 글의 핵심어는 '벼락치기'입니다.

④ 일상적 행동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 선택지와 지문의 내용과 관련 지을 수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14. 다음 문장들을 이용하여 두괄식으로 한 단락을 구성한다면 전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지리적으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도서’이다.
- ㉡ 독도를 당시 ‘우산도’라고 호칭한 것도 옛 우산국의 영토로서 본도(本島)를 ‘울릉도’로 호칭하게 되자 울릉도의 속도(屬島)인 독도에 ‘우산도’의 명칭이 옮겨 붙은 것이다.
- ㉢ 15세기의 “세종실록”에는 울릉도를 ‘본도’라 하고, 독도의 당시 명칭인 우산도를 울릉도의 속도라고 하였다.
- ㉣ 울릉도의 영유 국가가 독도의 영유 국가가 된다.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④

(해설)

- ‘두괄식’은 주장이 문두에 나오고 주장에 따른 근거가 뒤에 오는 구성을 말합니다.

- ㉣ 울릉도의 영유 국가가 독도의 영유 국가가 된다. (주장)
- ㉠ 지리적으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도서’이다. (근거 - ㉣을 부연 설명)
- ㉢ 15세기의 “세종실록”에는 울릉도를 ‘본도’라 하고, 독도의 당시 명칭인 우산도를 울릉도의 속도라고 하였다. (㉠에 대한 상술-예시)
- ㉡ 독도를 당시 ‘우산도’라고 호칭한 것도 옛 우산국의 영토로서 본도(本島)를 ‘울릉도’로 호칭하게 되자 울릉도의 속도(屬島)인 독도에 ‘우산도’의 명칭이 옮겨 붙은 것이다. (㉣을 부연 설명)

15.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저가> <도솔가> <가시리> 모두 고려가요이다. ② 1910년대를 최남선과 이광수 2인 문단시대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 ③ 문학에서 개연성이란 현실 모사(模寫)를 뜻한다. ④ 1920년대에 순수 문학을 추구하는 ‘카프’ 단체가 결성되었다.

정답 ②

(해설)

- 1910년대에 ‘시’에서는 최남선, ‘소설’에서는 이광수가 대두되었던 ‘2인 문단시대’였습니다.

- 나머지 선택지 살펴보기

- ① <상저가> <도솔가> <가시리> 모두 고려가요이다. → <도솔가>는 신라 향가에 속합니다.
- ③ 문학에서 개연성이란 현실 모사(模寫)를 뜻한다.
→ 문학에서 개연성은 현실에 있을 법한 일을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연성 있는 허구입니다.
현실을 유추/묘사/모방/반영/재현/재구성하지만, 현실을 그대로 모사하지는 않습니다.
- ④ 1920년대에 순수 문학을 추구하는 ‘카프’ 단체가 결성되었다.
→ 카프(KAPF)는 이념, 계급, 투쟁 등을 추구한 단체였습니다. 순수 문학을 추구하는 사조는 1930년대에 순수시·주지시·생명시·청록파 등에서 나타났습니다.

16. 다음 밑줄 친 것 중에서 의미가 가장 다른 하나는?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①

(해설)

- 미지의 세계를 나타내는 시어입니다.

- 나머지 선택지 살펴보기

② ㉡흰나비 →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문명에 대응하는 지식인)를 나타내는 시어입니다.

③ ㉢청(靑)무우밭 → 이상 세계, 동경의 대상을 나타내는 시어입니다.

④ ㉣공주(公主) →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약한 존재를 나타내는 시어입니다.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작자: 김기림(1908~?), 출전: 여성(1939)

성격: 주지적, 감각적, 상징적

특징: ① 시각적 이미지 위주의 색채 대비가 두드러짐. ② 구체적 소재를 통해 추상적 관념을 표현함. ③ 감정을 절제한 객관적인 태도로 대상을 제시함.

주제: 이상향에 대한 동경과 좌절, 순수하고 나약한 지식인의 절망

<참조: 2020 국어로 심화편 2권, 107페이지-운문문학>

20. 다음은 고전시가 작품의 일부분이다. 현대역 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둘하 노피곰 도드샤 → 달님이시여, 높이높이 돋으시어 ② 꽃 도쿄 여름 하늬 니 →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③ 시절이 하 수상하 니 → 시절이 너무 수상하니 ④ 한중진미(閑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 한중진미를 알 리 없이 혼자로구나

정답 ④

(해설)

- 한가한 생활 가운데의 참된 맛(자연에 사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 없이 나 혼자 즐기는 구나. 나머지 선택지의 경우 옳은 해석입니다.

①

갈래: 고대가요, 백제가요, 서정시, 망부사	제목: 정읍사, 출전(악학궤범)
형식: 3연 6구(후렴구 제외), 3음보	표현: ㉠ 의인법, 돈호법, 영탄법 ㉡ 대조적 이미지 : 달(광명) ↔ 진곳(어둠)
구성: * 제1행 ~ 제4행 : 달님에의 청원 * 제5행 ~ 제7행 : 남편에 대한 염려 * 제8행 ~ 제11행 : 남편의 무사함 기원	
주제: 행상나간 남편의 무사귀환 소망	국문학사적 의의: 현전 유일의 백제 가요. 한글로 표기된 최고(最古)의 가요.

②

갈래: 악장, 장편 영웅 서사시, 건국 서사시, 송축가	제목: 용비어천가(1447)
형식: 2절 4구체(1장과 125장은 예외)	
구성: (1) 서사 (1~2장) → 조선건국의 정당성과 왕조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 송축 <개국송(開國頌)> (2) 본사 (3~109장) → 육조의 사적을 예찬함으로써, 건국의 합리성 찬양 <사적찬(事蹟讚)> (3) 결사 (110~125장) → 후대 임금들에 대한 교훈과 경계 <계왕훈(戒王訓)>	
주제: 조선 건국과 왕조 창업의 정당성	

③

갈래: 평시조, 단시조, 정형시, 서정시, 비분가	제목: 가노라 삼각산아
작자: 김상헌(1570~1618), 출전(청구영언)	주제: 고국을 떠나는 신하의 안타까움, 병자호란의 슬픔

④

갈래: 서정가사, 양반가사, 정격가사, 은일가사, 강호한정가	제목: 상춘곡
작자: 정극인(1401 ~ 1481), 출전(불후언집, 1786)	구성: 서사, 본사(춘경·상춘), 결사의 3단 구성
성격: 묘사적, 예찬적, 서정적, 주정적	주제: 탈속적 자연친화, 안빈낙도
이 작품의 특징: 창작은 15세기에 지어졌으나, 상춘곡 원문 표기는 <불우현집>이 간행된 18세기 표기	